

보도시점 (온라인,지면) 2025. 11. 12.(수) 16:00

위기상황대응본부 1차 회의 개최

- 남은 시스템 복구 마무리에 총력...대구센터 이전 복구 집중 논의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11월 12일(수) 16시,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(위기상황대응본부장) 주재로 '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(이하 '위기상황대응본부') 제1차 회의'를 개최했다.
-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6일,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가 '심각'에서 '경계'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, 대응체계가 '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'에서 '위기상황대응본부'로 전환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점검 회의이다.
- 위기상황대응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까지의 복구현황을 점검하고, 향후 복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.
- 11월 12일 14시 기준으로, 총 709개 시스템 중 695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 98.0%*를 달성하였다.
* 1등급 40개(100%), 2등급 67개(98.5%), 3등급 256개(98.1%), 4등급 332개(97.6%)
-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시스템은 11월 20일 전까지 모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며, 현재 예정대로 추진 중이다.
-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이전 진행현황도 점검하였다.
- 현재, 12월까지 이전을 목표로 인프라 구성,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,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, 시스템 소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.

○ 민간 클라우드 이전·복구를 위해, 지난 11월 11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비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.

※ 11.11.(화) 국무회의에서는 총 261억 원의 예비비를 의결하였으며, 이 중 196억 원은 대구센터 민관협력존 이전, 65억 원은 개별 부처의 복구 비용 보전에 배정

□ 또한, 미복구 시스템 소관 기관*을 대상으로 국민 불편사항과 복구과정상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.

*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, 개인정보보호위원회, 소방청

○ 각 기관은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대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국민 불편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.

□ 위기상황대응본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복구 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.

○ 특히, 대전센터 복구와 대구센터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, 복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.

□ 김민재 차관은 "대부분의 시스템 복구를 마무리한 만큼, 남은 시스템도 조속히 정상화하여 모든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라면서,

○ "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정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한층 강화하고, 국민께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겠다"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	책임자	과 장	조원갑 (044-205-2702)
		담당자	사무관	송동근 (044-205-2718)